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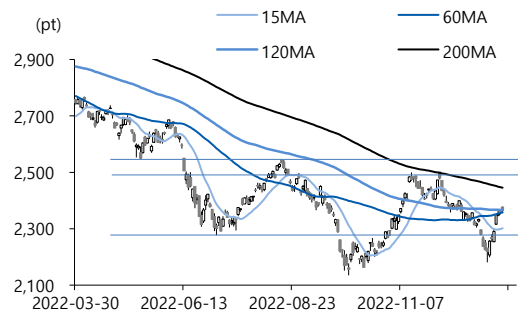


KOSPI, 중기 저점 상향 조정

1. KOSPI, 장기 하락 추세 중단

- KOSPI, 작년 하반기 RSI와 상승 다이버전스 형성 후 1월초 이후 반등 과정에서 중기 저점 상향 조정. 장기 하락세 중단 가능성 높음.
- 다만 2,500~2,550pt에 작년 8, 11월 고점대 저항 존재. 강한 저항 예상, 돌파에 성공해야 상승 국면 진입으로 볼 수 있음.
- KOSDAQ지수 역시 중기 저점 상향 조정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부진. 바닥 확인 과정 필요.

KOSPI일봉과 RSI, 작년 하반기 상승 다이버전스 형성 후 중기 저점대 상향 조정. 장기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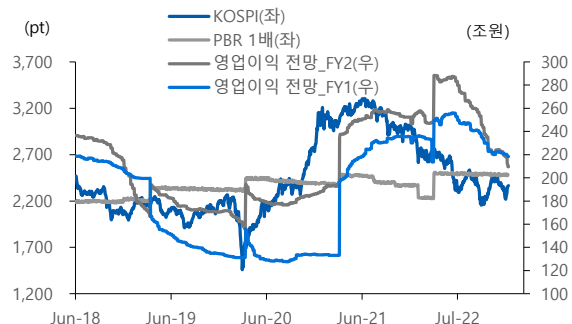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KOSPI 이익 전망과 지수 흐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음해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당해 이익 전망치 하향 이탈하는 경우 주가 바닥 형성.
- 최근 2023년 전망치가 2022년 전망치 하향 이탈해 바닥 형성 가능성 높음. 다만 반등 시 PBR 1배가 저항으로 작용.
- PBR 1배 돌파 시점에 KOSPI는 강하게 상승. 하락하던 영업 이익 전망치가 소폭이라도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야 함.

KOSPI와 PBR1배, 영업이익의 전망_FY1(당해), 영업이익의 전망_FY2(다음해) 추이(2008~2009)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KOSPI, 장기 하락 추세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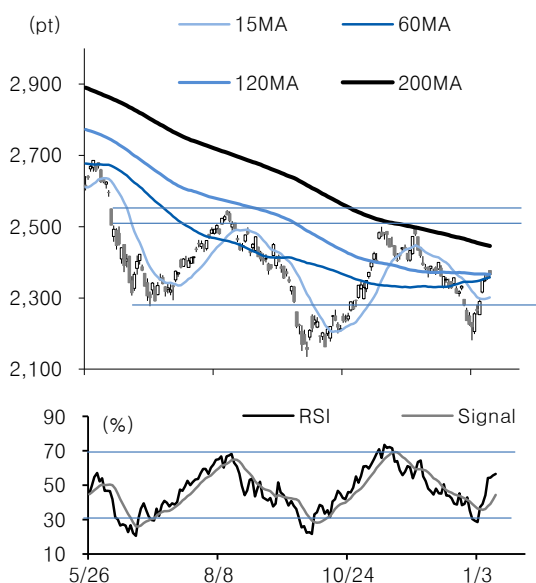
연초 KOSPI는 장 중에 2,200pt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인플레이 둔화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가 맞물려 2,365pt까지 반등했다. 이 과정에서 작년 9월 말 저점보다 높은 수준에서 1월 저점이 형성되었고, 12월 중에 이탈한 120일 이평선에 다시 도달했다.

KOSPI는 이미 작년 7월에서 10월이 중기 저점이 낮아지는 가운데 RSI의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었고, 이번 1월에 중기 저점이 높아져 장기 하락은 마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500~2,550pt 수준에 이전 고점대 위치해 강한 저항 예상되고, 이 가격대를 넘어서야 상승 국면 진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KOSDAQ지수는 KOSPI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일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고, 1월 저점이 작년 10월 저점보다 높아져 장기 하락 중단 가능성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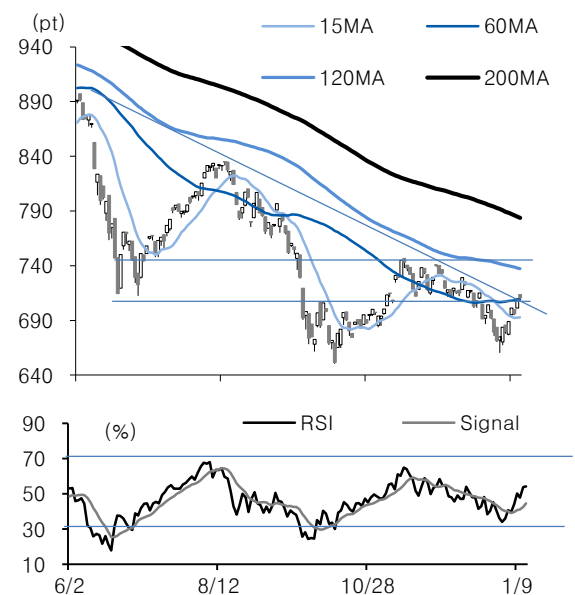
[차트2]에서 볼 수 있듯이 KOSDAQ지수는 아직 120일 이평선을 회복한 적이 없고, 740pt 부근에 11월 고점대 저항 존재해 바닥 확인 과정이 좀 더 필요하고, 상승 국면 진입 여부는 아직 타진하기 이른 상황이다.

[차트1] KOSPI일봉과 RSI, 작년 하반기 상승 다이버전스 형성 후 중기 저점대 상향 조정. 장기 하락 마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DAQ일봉과 RSI, 중기 저점대 상향 조정, 장기 하락 추세선 돌파로 하락 추세 중단 가능성 부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KOSPI 이익 전망과 지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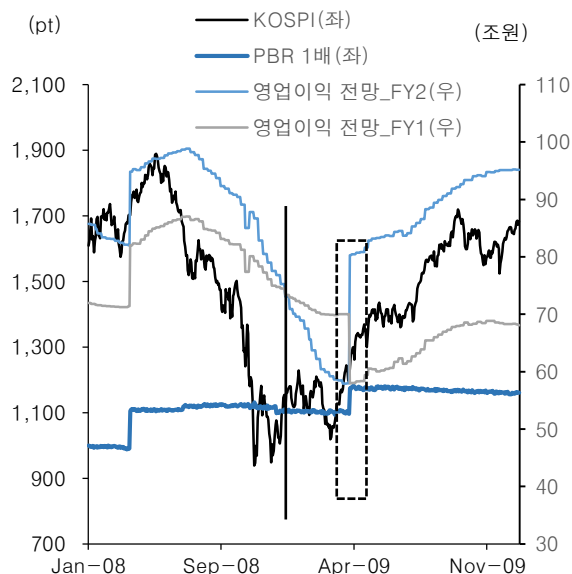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이익 전망과 주가 흐름을 보면 다음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당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이탈하는 시점을 전후해 장기 하락세가 멈추는 모습을 보였다. [차트3]과 [차트4]의 막대로 표시한 부분이 그런 시점이다.

최근에 1월 저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2023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022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이탈해 과거 패턴을 고려하면 장기 바닥 형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KOSPI PBR 1배는 약 2,500pt 수준에 위치하는데 경험적으로 이 PBR 수준은 저항으로 작용했고, 지금도 작년 8월과 11월의 고점이 PBR 1배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차트3]과 [차트4]를 보면 이 PBR 배 부근의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을 점선 박스로 표시했는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락을 멈추고 소폭이나마 상승 전환하는 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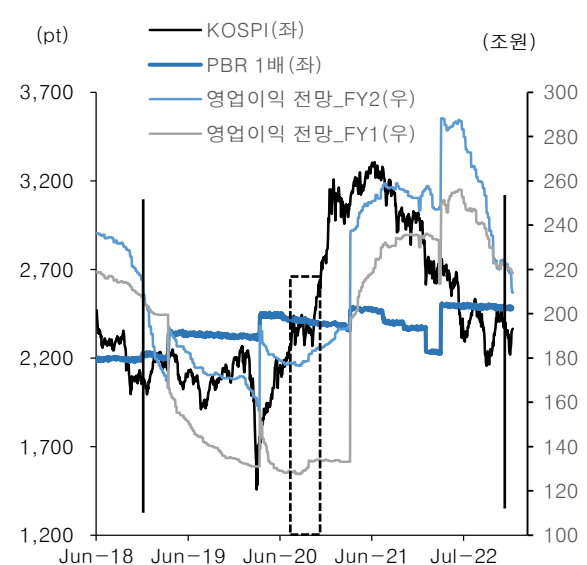
따라서 이익 전망치와 PBR 수준으로 볼 때, KOSPI가 추가로 저점을 낮출 가능성은 낮지만 의미 있는 상승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영업이익 전망치의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차트3] KOSPI와 PBR1배, 영업이익 전망_FY1(당해), 영업이익 전망_FY2(다음해) 추이(2008~2009)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KOSPI와 PBR1배, 영업이익 전망_FY1(당해), 영업이익 전망_FY2(다음해) 추이(2018~2023)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